

西洋史教育의 意義와 課題

金 榮 漢
(漢陽大 史學科 副教授)

I. 西洋史教育의 意義와 重要性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풍토에서 西洋史學의 存在意義와 그 교육의 重要性에 대한 인식은 심히 歪曲되어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그같은 이유를 학문외적인 면과 학문내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문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온 民族主體性의 확립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西洋史學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反問에서 비롯된다.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反應은 매우 부정적, 회의적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적 태도마저 엿볼 수 있다. 이것은 昨今の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투철한 민족의식이 결여된 國籍 없는 교육풍토가 모두 무질제한 西洋文物의 도입에서 결과한 것이라고 診斷하고 이에 대한 反動으로 야기된 것이었다. 이러한 視角에서 西洋史學을 바라볼 때, 그것은 자칫 서양문화의 예찬과 숭배만을 助長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自己喪失의 文化的 事大主義를 초래하리라는 강한 우려와 공포를 낳게 마련이다. 西洋史學과 그 교육이 냉대받고 있는 근본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문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西洋史研究가 과연 참다운 학문적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懷疑이다. 다시 말하면 서양사 연구가 고작 서양 학설의 소개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서양학자들의 업적을 도방 내지는 표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韓國史學에 도움이 되는 이론과 지식을 소개하고 韓國史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데 서양사 연구의 보다 큰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西洋史學의 存在意義는 韓國史學을 위한 종속적 가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意識이 은연중 學界와 教育界에서 西洋史에 대한 輕視風潮를 낳게 하였고 그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中等學校와 大學의 教科課程이나 大學入試制度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찬동할 수 없는 근본적 이유는 그같은 주장들이 학문의 본질과 目標, 문화의 본질과 特性에 대한 확실한 인식적 기반이 매우 허약한, 다분히 피상적, 감정적 차원의 주장이라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콜링우드(R.G. Collingwood)가 지적했듯이 「人間의 自己認識」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기인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적 특수성과 인간의 보편적인 자기의 本性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사를 연구하든, 동양사나 서양사를 연

구하든, 역사를 연구하는 궁극적 目標은 동일한 것이다.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길과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의 목적이 인간의 自己認識에 있다면 인간이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고립된 개체로서의 인식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인식을 의미한다. 바둑판 위에 놓인 한 알의 흑돌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른 또 하나의 백돌이 놓여질 때 백돌과의 관계에 의해 그 위치와 좌표의 의미가 인식되는 것이다. 사실상 客體와 對象이 없다면 主體 또한 인식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사의 특수성과 차이성, 공통성과 보편성을 이해하려면 동양사와 서양사 나아가 세계사와의 관련 속에서 비교 조명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歷史學의 한 本領으로서의 西洋史學의 연구와 교육은 서양 역사에 대한 理解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아가 한국사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는 眼目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西洋史教育은 결코 民族主體性을 망각하고 民族文化에 대한 沒理解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西洋史學者가 반드시 韓國史學者보다 主體性이 약하고 현실감각과 비판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만일 西洋史가 文化的 非大主義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韓國史는 國粹主義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와 같은 위험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결코 한국사의 연구를 소홀히 하거나 배격할 수 없는 것처럼 서양사의 연구와 교육 또한 경시되거나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동일한 논리의 歸結인 것이다

Ⅱ. 西洋史教育의 現況과 課題

지금까지 西洋史教育의 중요성을 학문의 본질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西洋史教育의 필요성은 現實的 要請에 의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 現代의 世界는 한마디로 정치, 경제, 문화 생활양식 등에 있어 좋은 나쁜 서양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가

곧 유럽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것은 유럽化의 역사, 즉 西歐化의 과정인 것만은 否認할 수 없다. 이른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新生國들은 그들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고 부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들이 産業化 내지 近代化되는 과정에서 서로 유사하게 西歐化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新生國家들은 과거에 그들을 지배했던 西洋人들에 대해 분개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완강하게 對抗하여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은 바로 西歐의 武器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며 西歐的 關心事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고 세계 시장과 국제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西歐의 帝國主義에 저항하기 위해 내세운 그들의 슬로건인 自決主義, 民族主義, 社會主義 자체가 사실은 모두 西歐的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물론 앞으로 전개될 世界史가 완전히 西歐의인 것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西洋은 文物制度와 意識 면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現代史의 理解는 서양문화에 대한 근원적인 理解 없이 불가능하며 西洋文化를 이해하려면 西洋史教育을 강화하지 않고는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 참으로 奇異하게 생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西洋文化의 利器를 너나할것없이 享有하면서도 관념적으로는 西洋文化의 理解와 受容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衣食住 生活에서부터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문물제도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그 제도의 배후에 있는 정신과 이념만을 배격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가당착인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관념적 二分法에 의해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찌기 서양문명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中體西用, 東道西器를 부르짖었지만 그것이 성공할 수 없는 한낱 슬로건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그렇다고 필자는 西洋文化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주장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의 西洋文化의 受容은 불가피하며, 그 불가피한 外來文化의 수용을 올바르게 그리고 비판적

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必要不可缺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西洋史教育의 課題와 任務가 至大함은 再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西洋史學은 대학교육에 있어서나 그리고 서양사학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거의 소외된 상태에 있으며 그 存在意義마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에서의 西洋史教育의 現況은 어떠하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학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教授, 충분한 教育施設과 教材, 학생들의 意慾, 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이 대부분 教授難과 교육시설 및 교육자료난에 처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 西洋史學 분야는 특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專任講師 이상의 西洋史學者들의 수는 겨우 80여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西洋史學科가 독립되어 있는 서울大學校를 제외하면 대체로 한 학교에 2~3명 아니면 1명 정도의 西洋史教授가 존재한다. 심지어 史學科는 있으나 아직도 西洋史教授가 없는 大學도 있다. 그러므로 평균 1~2명의 교수가 그 대학의 모든 西洋史教育을 담당한다. 시대적으로는 古代史에서부터 現代史까지 지역적으로는 西洋의 各國史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업이 한두 사람에게 의해 교수된다. 그 결과 분야에 따라서는 깊이 있는 강의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학 교수의 개인적 자질, 능력, 취향, 관점에 의해 西洋史教育과 研究가 완전히 좌우된다.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 하더라도 개인적 한계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각 대학에서 서양사 교수의 확보와 증원이 가장 시급히 요망됨에도 불구하고 한 면으로는 西洋史教育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다른 한 면으로는 現行 教科課程이 서양사 교수의 증원을 가로막고 있다. 예를 들면 교양과목으로 文化史가 없거나 大學院이 없는 大學에서 2명의 西洋史教授가 재직할 경우 한 사람은 담당할 西洋史 科目이 없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교수의 책임시간이 週當

9시간이라 할 때 韓國史, 東洋史, 西洋史, 考古學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史學科에서 한 학기에 西洋史 科目을 6 講座(18시간) 이상 設講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이 아직도 1명의 西洋史教授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실정하에서 정상적인 西洋史教育을 기대한다거나 西洋文化를 제대로 이해하여 受容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요구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서양사교육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研究資料와 教材의 절대적 빈곤이라 하겠다. 같은 歷史學 分野라 하더라도 西洋史學은 韓國史學에 비해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이 있다. 우선 語學力의 한계와 西洋文化의 異質性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닌 全西洋史를 섭렵하여 교육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 이같은 불리한 條件 때문에 西洋史學者들은 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韓國史學者들 만큼 많은 업적을 내지 못하는 수가 있으며 교육면에서도 자칫 수박 겉핥기 식의 피상적이 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어려움 중, 무엇보다 西洋史 研究와 教育에 큰 장애가 되어 온 것은 자료와 교재 구입의 어려움이었다. 一次資料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간 도서와 학술지를 제대로 구입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극히 드물다. 최근에 와서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서양사학도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요원한 이야기이다. 결국 우리나라 서양사학이 오늘의 수준에 이른 것은 거의 대부분 西洋史學者들의 개인적인 자료수집과 노력의 결실이었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대학의 학생들은 그들의 학습과 논문작성에 있어 교수들의 자료와 서적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학생들이 西洋史 專攻을 꺼리는 이유는 이상과 같은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基因한다.

학생들의 西洋史 研究意慾을 감퇴시키고 그 결과 西洋史 研究志望生의 수효를 감소시킨 주요 원인의 하나로서는 1970년대의 문교정책을 들지 않을 수 없다. 民族主體性의 確立을 위한 教育改革의 일환으로 大學教育課程에서 國民倫理와 韓國史가 교양필수과목으로 신설되고 대신 世界文化史는 교양선택과목으로 격하되었다. 이

때부터 대학에 따라서는 문화사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아니면 축소시켜 일부 학생들에게만 수강토록 하였다. 그 결과 大學에서의 西洋史 教授의 需要가 격감하게 되었고 그같은 수요의 격감은 자연히 서양사 지망생의 장래를 어렵게 하여 그들의 연구의욕을 잃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교부의 한국학 진흥책은 상대적으로 西洋史學의 위치와 가치마저 저하시킨 셈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양사학은 대학이나 사회단체의 재정적 지원으로부터도 점차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의 時點에서 볼 때 이와 같은 文教政策은 시대에 逆行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19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I.P.U.,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같은 국제회의와 대회를 유치하여 국제사회로 진출하려는 적극적인 多元外交政策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國際化時代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문화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해 文化史教育은 오히려 권장되고 강화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Ⅲ. 西洋史教育의 改善을 위한 提言

한 나라의 文化的, 知的 水準은 어느 특정 분야의 발전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친 綜合的 發展에 의해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역사학 수준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東洋史와 西洋史가 균형있게 발전하여 서로 병행될 때 비로소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사학의 발전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 역사학의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尺度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점에서 西洋史教育의 改善은 무엇보다도 西洋史學의 價値와 意義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西洋史教育의 개선방안에 대해 필자 나름의 생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教授의 充員이다. 각 대학의 史學科에는 時代史를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 3~4명의 교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講座의 수도 증설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西洋史學者들의 연

구분야가 지나치게 近代史에 편중되어 있어 시대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접대학간의 긴밀한 협조와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재 西洋史 教授가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겨우 한 명뿐인 대학들이 한 사람의 교수라도 서둘러 채용하는 일일 것이다.

둘째, 교양과목으로서의 世界文化史 教育의 강화이다. 世界史에 대한 知識이 현대인의 교양에 필수적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文化史教育의 輕視가 곧 西洋史教育의 比重을 격하시킨 결정적 요인의 하나였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세째, 서양사 연구와 교육을 위한 人的 資源의 확보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의 西洋史研究는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研究者의 우수한 자질과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더우기 적은 수의 연구자들이 광범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자가 개척적 정신으로 자기 분야를 탐구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없다면 西洋史學을 위한 후진양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대학은 한국학 연구생들 못지 않게 西洋史 研究志望生들을 후원하고 특히 外國留學에 특전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각별한 배려를 하여 우리나라에서 미개척 분야의 연구를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西洋史教育은 이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資料와 教材의 확보문제이다. 만일 우리나라에 미국 대학 규모의 도서관이 단 하나만 있어도 자료난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은 기대되기 어려운 만큼, 최선의 방법은 필요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效果的 方法을 모색하는 길일 것이다.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과 계몽을 위해 서양사의 기본서적과 교재를 책임있게 번역하여 보급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課題이다. *